히말라야 설산이 녹으면 인류도 사라진다

현불논단



준한 스님
서울 홍대선원 주지

지난 8월 26일 네팔 북부 랑탕 리룽 일대에서 빙하와 기반암이 무너지며 거대한 물과 진흙의 파도가 마을과 도로, 발전소를 휩쓸었다. 참사의 정확한 원인은 더 살펴봐야겠지만,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산비탈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는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이어진다면 금세기 말 히말라야 빙하의 최대 80%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 최상단에는 중국과 미국, 인도가 있다. 그러나 정작 직격탄을 맞은 곳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해맑게 웃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가장 적게 누린 이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기후위기의 아이러니다.

지수화풍(地水火風). 불교에서는 우리의 몸과 자연이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라는 네 가지 요소의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어느 하나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온전할 수 없다.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그 편리는 끝없는 욕망과 생산·소비, 그리고 낭비와 쓰레기를 낳았다. 특히 '화(火)'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 공기가 달아오르고 물은 넘치거나 마른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터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벌이 아니라 인연과보(因緣果報)의 명백한 이치다.

지구온난화가 부른 네팔 대홍수 참사
끝없는 탐욕의 인연과보, 인간의 공업
이재민에 모금 전달·어려움 함께할 터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스스로 가장 영리하고 강한 종이라 자부한다. 그러나 평균 15도 안팎인 지구의 표면온도가 1~2도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을 위협받는다. 지구에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대멸종이 있었고, 마지막 대멸종은 약 6600만년 전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멸종을 불러올 원인은 소행성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공업(共業)일지도 모른다.

나는 13년 전 첫 히말라야 순례를 시작해 18개월간 그 길을 걸었다. 지난해에는 안나푸르나 아래 해발 1400m의 터를 만나 '코리안 베이스캠프'가 될 히말라야 선원 불사를 시작했다.

9월 5일 홍대선원 4주년 법회를 마치면 법당 공사를 시작하러 네팔로 떠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출발을 앞두고 참사가 일어났다. 다시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나라, 히말라야에서 나는 무엇을 하려는가.

불사는 건물 한 채, 법당 하나를 세우는 일이 아니다. 그곳 사람들 곁에 서고, 물과 숲과 마을을 함께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 그래서 며칠 전 긴급 모금을 시작했다. 닷새도 지나지 않아 60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같은 마음을 낸 이들의 정성을 모아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네팔로 향한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벗이 참된 벗이라 하셨다. 세계는 하나의 마을이고 우리는 지구의 가족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 곁에서 함께 걷고 설산을 지키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불사다. 히말라야 설산이 다 녹는 순간, 네팔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함께 사라진다.

인디언 추장, 인생을 말하다

세간과 출세간



이미령
칼럼니스트

늙은 인디언 추장에게 나이 든 딸이 있었다. 늙은 딸이 자기보다 더 늙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인생이 뭔가요?"

딸의 느닷없는 질문을 받자 아버지는 묵묵부답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기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봤다. 숱한 기억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꼬리를 물고서 떠오르다 사라지고, 늙은 인디언 추장은 긴 회상에서 깨어나더니 힘들게 천천히 입을 열었다.

"딸아, 삶이란 건 말이지, 초가을 황혼 무렵, 풀을 스치는 바람소리 같고, 밤에 날아다니는 불나방의 번쩍임과 같고, 한겨울에 들소가 내쉬는 숨결 같은 것이며, 풀밭 위를 가로질러 달려가 저녁노을 속에 사라져 버리는 작은 그림자 같은 것이다."(〈삶이란 바람소리일 뿐이다〉 중에서)

온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할 수 없으리라. 인생무상이란 사자성어가 이렇게 아름답고도 진솔한 비유로 표현될 수 있을까 감탄하며 내 마음속에 담아뒀던 글귀다.

경전을 펼치면 삶이 참으로 덧없다는 메시지를 도처에서 만난다. 빈두로 존자가 우타연 왕에게 설법했다는 긴 제목의 경전을 보자.

"새들이 밤이 되면 나무 한 그루에 깃들었다가 새벽이 되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저녁이 되면 객사에 나그네들이 모여들었다가 날이 밝으면 각기 다른 길로 떠나는 것처럼, 꽃이 활짝 피면 벌들이 모여들었다가 꽃이 시들면 멀리 떠나는 것처럼, 넓디넓은 호수에 백조들이 깃들어 모였다가 호수 물이 마르면 멀리 날아가버리는 것처럼…."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덧없다는 것이다. 뜨거운 여름에 아름답고 고고하게 피어난 연꽃도 가을이면 누렇게 시들어 버린다는 비유도 있다.

지나고 보면 무색한 여름날 더위 타령
여름 지나니 무더위에 집착 부끄러워
상념 대신 생계 활동·마음공부 힘써야

덧없음을 일깨우는 경전을 읽자면 인생무상이라는 이치에 공감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아예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무상을 탄식하는 엘레지[悲歌]에서 끝난다면 불교가 아니다. 인생을 허망하게 살아오다 노년에 이른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이 들려주는 게송은, 마냥 상념에 젖어 있던 내게 뼈아픈 일깨움으로 다가온다.

"저들은 젊었을 때 마음공부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다. 가진 재산을 모두 낭비한 지금, 실의에 잠긴 모습은 날개 부러진 왜가리가 물고기 없는 마른 못에 있는 것 같다. 힘없이 누워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라. 힘이 다해 땅에 떨어진 화살과 같이, 지나가버린 것을 신음하고 탄식할 뿐이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더위도 이제 조금씩 힘이 빠져서 어느 사이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 무더위도 무상한데 왜 그토록 "덥다"는 말을 여름 내내 입에 달고 살았을까. 여름이 이렇게 속절없이 떠나갈 때에야 그에 집착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 그럴 시간에 노부부를 바라보며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무더울 때나 사무치게 추울 때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다. 부지런히 생계 활동을 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마음공부하여 인생에 가치를 찾는 일이다. 하긴, 이 두 가지 말고 또 무엇이 있으랴!

社說

화합으로 한국불교 새 도약 이루길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진우 스님이 당선됐다. 지난 4년간 제37대 집행부를 이끌었던 진우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자승 스님에 이어 두 번째 연임 총무원장이 됐다.

이번 선거는 종단 운영의 안정과 주요 종책의 연속성을 선택할 것인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였다. 종도들은 진우 스님을 택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선거 결과에 담긴 종도들의 뜻을 어떻게 종단 발전으로 이어가느냐다.

무엇보다 제38대 집행부가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종단의 화합이다. 진우 스님도 당선 직후 "화합으로 하나 되며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수반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까지 갈등과 대립이 이어진다면 종단의 역량을 결집하기 어렵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여러 목소리를 종단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 과정 갈등 넘어 마음 하나로 모아
불교 호감 · 선명상 흐름 이어 열매 맺길

화합은 안정의 종착점이 아니라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다. 진우 스님은 지난 임기 동안 선명상 보급, 불교박람회,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젊은 세대와 국민에게 불교를 새롭게 알리는 데 힘써왔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고 종단의 안정적 운영을 이끌어낸 것도 주요 성과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한국불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

특히 진우 스님이 제시한 'K-불교문화'의 세계화는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전통 사찰과 수행문화, 사찰음식, 불교문화가 세계인에게 새로운 정신문화의 자산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안으로는 승가복지와 종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진우 스님은 출가에서 열반까지의 완전복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본수행비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수행자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종단의 미래를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밖으로는 국민과 사회가 불교에 기대하는 역할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불교는 과거보다 높은 국민적 호감을 얻고 있지만, 호감이 곧 신행과 불교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교가 사회의 고통과 갈등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안을 제시하는 종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대의 문제에 더욱 적극 응답해야 한다.

진우 스님은 당선 소감에서 "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원융화합을 통해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종단 안에서는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종단 밖에서는 한국불교가 가진 역량을 세계로 펼쳐야 한다. 안정에 머물지 않고 도약하되, 도약을 위해 화합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

지난 4년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그 변화가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진우 스님이 원로 스님들의 당부처럼 '꽃이 피기 시작한 한국불교'가 충실한 열매를 맺도록 원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9월 9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9월 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9월 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